

[보도자료]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중장년 채용 업무협약 체결

2023. 5. 19.



이성수(왼쪽)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사업운영본부장과 박익형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인사부문 상무가 19일 서울 은평구 '서울시 50 플러스 서부캠퍼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서울시 50 플러스재단과 손잡고 중장년 재취업기회 확대
- 현장직 '팀캡틴' 및 안전·보건관리자, 통역 등 전문직 300명 이상 채용예정
- 만 40~59세 수도권 거주자대상 오는 31일 채용설명회 개최

2023. 5. 19. 서울 -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CFS)가 19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CFS 박익형 인사부문 상무,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성수 사업운영본부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중장년의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와 물류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두 기관은 오는 31일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에서 만 40~59세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채용설명회에서는 물류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직 '팀 캡틴' 뿐만 아니라 자동화설비 유지보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물류총괄 관리자, 통역 등 전문직에 대한 직무 내용 및 조건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CFS 채용설명회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으며, 29일까지 50플러스포털(50plu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CFS 박익형 상무는 "이번 협약이 물류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재취업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앞으로도 새로운 커리어를 꿈꾸는 4050 세대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CFS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경기도 안양시, 대구광역시 등에서 개최한 중장년 취업박람회에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 서울서부, 경기, 창원지점에서 채용설명회를 추가 진행 예정이다. 실제 전국 CFS 사업장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경험을 쌓은 중장년들이 입사해 새로운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